
2018 호루라기 부는 날

올해의 호루라기 시상식

- 일시 : 2018년 12월 14일(금) 오후 6시 30분
- 장소 :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1층 산 다미아노



양심
의소리

호루라기재단

2018 호루라기 부는 날

올해의 호루라기 시상식

- 일시 : 2018년 12월 14일(금) 오후 6시 30분
- 장소 :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1층 산 다미아노



양심
의소리

호루라기재단



2018 호루라기 부는 날

올해의 호루라기 시상식

- 일 시 : 2018년 12월 14일(금) 오후 6시 30분
- 장 소 :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1층 산 다미아노
- 식 순 :

개회사	사회자 : 이해관 호루라기재단 이사
인사말	이영기(호루라기재단 이사장)
내빈 소개	사회자
재단 이사·감사 소개	사회자
축사 및 격려사	박은정(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조희연(서울시교육감)
심사평 발표	김종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호루라기상 시상식 및 수상소감 발표	◇ 2018 올해의 호루라기상 서지현(검사) ◇ 2018 올해의 호루라기 언론상 최기훈(뉴스타파 기자) 김영태(CBS노컷뉴스 선임기자)
사진 촬영	수상자 모두
축하 공연	吉音판소리(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
폐회	사회자

※ 주최측 사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8 호루라기 부는 날

목 차

2018 올해의 수상자	5
심사평: 김종철(2018 올해의 호루라기상 심사위원장)	6
수상소감1. 서지현(2018 올해의 호루라기상)	12
수상소감2. 최기훈(2018 올해의 호루라기 언론상)	14
수상소감3. 김영태(2018 올해의 호루라기 언론상)	17
역대 수상자 소개	19
吉音판소리 소개	31

2018 올해의 수상자

2018 올해의 호루라기상

서지현(검찰 내 성폭력 제보)

2018 올해의 호루라기 언론상

최기훈 기자(뉴스타파)

김영태 선임기자(CBS·노컷뉴스)

심사평

김종철

2018 올해의 호루라기상 심사위원장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 심사의 경과

1. “우리 사회에서 공익을 위한 개인과 단체를 시상함으로써 양심적 행위를 장려하고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제정한 호루라기상이 올해로 일곱 번째 수상자를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수상자를 시상한다는 것은 ‘양심의 소리’를 자임하는 호루라기재단의 주요사업으로 자리매김한 호루라기상이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치유하고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확산하는 활동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노력들이 모여 우리 사회가 사람이 존중되고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 그동안 호루라기상은 “우리 사회에서 인권과 공익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공익제보’ 부문, ‘인권’부문, ‘언론과 표현의 자유’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해 왔지만 2017년, 작년부터 양심의 소리를 확산하는데 좀 더 집중하는 의미로 ‘공익적 활동(공익제보)’부문(올해의 호루라기상)과 ‘언론’부문(호루라기언론상) 두 부분에서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3. ‘2018 올해의 호루라기상’ 선정을 위하여 호루라기재단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활동 실적을 대상으로 2018년 11월 26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호루라기상 수상자 자격 기준을 충족시켜 심사대상이 된 개인 또는 단체는 공익적 활동 부문 여덟 후보, 언론 부문 여섯 후보가 추천되었습니다.

4. 호루라기재단은 예년과 같이 올해에도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7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고광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정부패방지위원장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상석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이사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이을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이정환 미디어오늘 대표(가나다순)

5. 심사위원회는 11월 27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약 2시간 동안 김종철 교수를 올해의 심사위원장으로 호선한 가운데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그 동안의 관행에 따라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고 심사하였습니다.

- ‘호루라기상’ 제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 공익을 위한 양심적 행위로서의 성격
- 민주사회 발전에의 기여 가능성 및 파급효과
- 공익과 인권을 위한 개인 또는 단체의 노력과 헌신
-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과 희생의 가능성과 정도
- 활동의 시기 및 지속적인 활동 가능성
- 활동의 중요도, 공익활동의 직업과의 관련성 및 외부지원 여부
- 동일한 활동으로 이미 다른 표창을 받은 바가 있는지 여부 등 호루라기상의 제정목적에 더욱 확산하는 데 고려할 수 있는 사유

6. 심사위원회는 올해 추천을 받은 모두 열 네 후보자 모두가 양심적 행위를 장려하고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기에 손색이 없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추천된 한 분, 한 분의 희생을 무릅쓴 노력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맑고 투명한 사회로 발전했다는 데 심사위원들 모두 일치하였습니다. 이렇게 공감한 만큼 수상자를 선정하는 일은 매우 고통스런 과제였습니다만 상 제정의 취지에 따른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올해의 수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아무

쫓록 우리 사회의 ‘호루라기’가 되어 주셨지만 수상하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심사위원회의 제한된 역할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7. 엄정한 선정과정 끝에 ‘2018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하신 분들께 심사 위원회와 호루라기재단을 지원하는 모든 분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모든 후보자 분들과 더불어 올해에도 우리 사회의 양심을 일깨우는 활동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거듭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나. 수상자 심사평

1. 2018 올해의 호루라기상 공익적 활동부문

수상자 : 서지현 검사

‘올해의 호루라기상’ 공익적 활동부문 후보로 추천되신 분은 모두 여덟 분이 있습니다. 자원외교를 빙자한 부정을 내부고발한 사례, 군납품관련 부정을 내부고발한 사례, 부정의약품 제조 등에 관하여 제보한 사례, 경찰관의 과태료 횡령사실을 신고하여 사직된 사례, 기생충 감염 식재료 납품사례 문제제기로 해직된 사례 등이 대표적 추천사례들입니다. 아울러 공익제보활동을 위한 지원활동에 힘쓰는 단체에 대한 추천도 충분히 의미있는 추천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례를 수상자로 모실 수 없어 아쉬웠습니다만 심사위원회는 2018년 한국 사회가 지구촌 모든 사회와 더불어 공공기관과 사회조직 내 성폭력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그 시정을 위한 사회운동에 나설 수 있도록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를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2018년 지구촌은 미국의 한 영화제작자의 추악한 성폭력을 폭로하기 위해 시작된 ‘Me Too운동’으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놀랍게도 가장 강력한 공권력집행기관이면서도 폐쇄적인 조직문화

로 악명이 높은 검찰에 소속된 현직검사였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성폭력을 자행하고 인사권을 오남용한 검찰간부를 내부고발하여 우리 사회, 특히 기득권사회의 권력지대인 정계, 교육기관, 언론계 등에 만연한 성폭력에 대한 ‘Me Too운동’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서 검사의 내부고발로 촉발된 우리 사회의 자정노력으로 앞으로 2018년은 성폭력에 대한 거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호루라기상이 무한한 두려움을 무릅쓰고 거대한 사회운동의 물결을 이루어낸 용기를 내어 준 서검사님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기대하고, 앞으로 제2의 서지현이 “공공기관, 기업, 단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나타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2. 제7회 올해의 호루라기 언론상

수상자

- 최기훈 뉴스타파 기자(국방안보관련 공익제보사건 집중보도)
- 김영태 CBS·노컷뉴스 기자(사립유치원 부정 등 사학비리 탐사보도)

제7회 올해의 호루라기 언론상 후보로는 총 여섯 후보가 추천되었습니다. 사학과 교회관련 부정보도로 감사와 징계를 이끌어낸 보도, 사이버 학술단체 관련 부조리를 고발하여 감사와 징계를 이끌어낸 보도, 올림픽부정관련 보도로 공식조사를 이끌어낸 보도 등이 후보자로 추천되었습니다. 이 분야 역시 추천되신 분들 모두가 언론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공익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사례들이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두 후보자를 호루라기 언론상 수상자로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수상자는 뉴스타파 최기훈 기자입니다. 최기훈 기자는 비밀보안을 방패삼아 취재방해가 일상화된 국방안보관련 부패와 공익제보를 집중적으로 취재보도하여 투명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기자가 보도한 군의 납품비리와 국정원 내부고발자의 억울한 상황에 대한 보도는 공익제보와 부정부패근절이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할 사안임을 보여주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최기자님의 보도로 우리가 공익제보를 하나의 사건처럼 받아들이고 구조적 대응이나 사후점검에 소홀할 때 부

정부패를 제대로 근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부고발한 개인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오히려 부담하게 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수상자는 김영태 CBS노컷뉴스 기자입니다. 김영태 기자는 탐사보도라는 집중 취재 시리즈 보도의 방식으로 언론의 공익발전기능을 확산한 공로가 확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전형적인 사회부조리인 사학비리의 '민낯'을 연속 보도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비리사학의 가해를 보도하여 사회문제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한편 피해자인 학교비정규직, 공익제보공무원, 기간제 강사, 시간강사, 채용비리에 좌절된 사람들을 집중취재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의 논리적, 이론적 근거를 확산시키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교육계의 현안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의 부재를 최초로 보도하면서 “유치원은 학교다”라는 명제를 기초로 에듀파인을 유치원에도 전면 도입하도록 이끌고 어린 원생들을 볼모로 한 한유총을 상대로 학부모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사립유치원의 부조리를 개혁하는 입법운동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의 호루라기 언론상 수상자들은 상업화와 정치화에 신음하고 있는 한국 언론계에 공익제보와 공익확산의 장으로 언론이 여전히 의미를 가치를 확인시켜 준 대표사례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다. 심사평 소감

지금 우리 사회는 전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제불평등과 그에 따른 사회양극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 사람이 먼저이기 보다는 자본이 중심이 되는 현실입니다. 서로 손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보다는 각자도생을 위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마저도 내팽개치도록 강요받는 험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 빙산의 일각인 국정농단세력을 탄핵하고 심판하기 시작한 지 2년이 되어가지만 상황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 운신의 폭을 허락하지 않던 분단과 남북적대관계가 전환의 조짐을 보이고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의 싹을 피우고 있지만 아직 튼실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독버섯처럼 만연

한 부정부패는 이런 모든 사회적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입니다. 호루라기상은 바로 우리 사회의 오랜 부정부패를 청산하여 사람이 존중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수상자를 시상하면서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양심의 소리를 끊임없이 전파하는 계기로서의 사명을 계속해나갈 수 있어 우리 사회의 희망이 쉽게 무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2018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하신 여러분께 그동안 보여주신 용기와 헌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오늘의 수상으로 여러분이 겪었을 고통과 희생에 대한 작은 보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호루라기재단의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호루라기상을 통해 오늘 수상하신 분들의 용기와 가치가 호루라기처럼 우리 사회의 양심을 깨우는 소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호루라기상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그 뜻을 더욱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전 호루라기재단에서 진행하신 팟캐스트를 본 스쿨미투 학생들이 말했습니다.

“여러 따가운 시선으로 인해 움츠러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우리가 ‘공익제보자’이고, ‘세상을 바꾸는 멋진 일을 하였다’고 생각하니 자랑스러운 마음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범죄피해를 이야기 하는 것, 공익제보자가 조직이나 사회의 부패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고통 받아야 할 일이 아닌데, 오히려 ‘세상을 바꾸는 멋진 일’이라 자랑스러워해야 마땅한데도 피해자들은, 공익제보자들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책을 보았습니다.

성인의 29%가 에이즈 감염인으로 성인 평균 기대 수명이 61살 정도였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011년 치료가 필요한 모든 이에게 무상으로 에이즈 치료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후, 한 시골지역을 조사한 결과 7년 만에 기대수명이 12년이나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묻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에이즈 때문에 죽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에이즈 치료약을 공공자금으로 제공하지 못했던 공동체로 인해 죽었던 것일까요?

저 역시 묻고 싶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공익제보자들은 성폭력 피해나 공익제보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성폭력과 부정부패를 방치하고, 범죄자들을 두둔하고, 오히려 피해자와 공익제보자들을 비난해온 공동체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죽어갔던 것일까요?

피해자들을, 부패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입을 열 수 없게 만든 것은 그들의 두려움과 나약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피해사실을, 진실을 들여다보기 보다는 그들을 배신자, 꽃뱀, 창녀라 부르며 의심하고 비난하여온 이 공동체 때문이었을까요.

제가 처음 입을 열기로 결심했을 때,
더 이상 검사도, 변호사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평생 집 밖에 나오지 못하는 삶도 감수하겠다는, 사회적 자살을 하는 그런 비장한 각오를 하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굳은 각오로 입을 열었지만, 뼈가 시리고 영혼이 떨리도록 추운 현실을 견뎌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누군가, 정의를 말하기 위해, 진실을 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비정상적인 시대는 이제는 끝나야 합니다.
공포와 수치로 피해자들의, 공익제보자들의 입을 틀어막아온 잔인한 공동체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이 공동체의 변화를 누구보다 소망하며 공익제보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호루라기재단에서 주시는 이 상은
더욱 더 굳건히 더욱 더 강건하게 피해자들을 공익제보자들을 지켜주시겠다는,
이 잔인한 공동체를 그냥 두고 보고만 있지는 않으시겠다는
단호한 의지이자 뜨거운 다짐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뜨거운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임자의 횡령 사실을 보고했다가 퇴직당한 전 국정원 직원 황규한 씨를 처음 만난 것은 1년 전 가을 국정원 정문 앞이었습니다. 황 씨는 국정원 정문 앞에서 다른 공익제보자들과 함께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짧은 인터뷰 중에 황 씨에게 물었습니다.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하겠느냐고. 주저 없이 ‘그러겠노라’란 답변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황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겪은 고통이 너무나 컸기에,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내게 했기에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황 씨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고통스러웠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전직 국정원 직원 황규한 씨의 이야기는 사건 초기에 여러 차례 언론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사고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언론은 한번 다뤄진 이야기에는 좀처럼 다시 주목하지 않습니다. 항상 한 번도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이야기를 찾습니다. 이런 언론의 속성은 때로는 진실을 불편해하는 쪽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오랫동안 취재했던 이유로 국정원 개혁을 주제로 한 다큐를 준비했던 것이 1년 전이었습니다. 그 때 황 씨를 잠깐 인터뷰하면서 나

중에 꼭 이 이야기를 다시 다루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아직 풀리지 않은 황 씨의 이야기를 기사로 썼습니다. 국정원의 적폐를 바로잡고자 하는 정부라면 황 씨의 문제부터 풀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황 씨는 국정원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피켓팅을 하고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몇 년째 그랬듯이 말입니다.

국가기관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공익제보는 국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 권익의 문제이거나 국민 세금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황규한 씨의 내부고발이 있었던 2007년 이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외교부 해외 파견 공무원들의 주택임대차 이면계약이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이 계속됐다면 수십, 수백억원의 세금이 지금까지 새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황 씨는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찍혔습니다. 승진에서 누락돼 한직으로 쫓겨나가거나 옷을 벗거나 오히려 죄인으로 내몰리는 대부분의 공익제보자들처럼 황 씨도 20년 넘게 몸담았던 국정원을 떠나야했습니다. 척박한 중동 땅을 누비던 베테랑 정보요원이 국가에 충성한 대가로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도 얻을 수 없어 파트타임과 일용직을 전전해야 했고 진실을 되찾기 위한 싸움에 남은 여력을 다해야 했습니다.

황 씨에게 잘못이 있다면 오랫동안 암묵적으로 이뤄져 왔던 범죄의 카르텔에 균열을 낸 것뿐이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관련돼 있는 이권의 문제이고 주류 핵심인사들의 책임이 결부된 문제였기 때문에 조직은 문제를 덮기 위해 황 씨를 희생자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렇게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작동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작동을 멈추게 하려면 우리 사회가 또 언론이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국정원이 황 씨의 문제를 풀기 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조직과 다르게 국정원은 군대와 마찬가지로 구성원들의 희생과 절대적인 충성이 뒷받침돼야 하는 곳입니다. 그 희생이 한 치의 흔들림도 없는 충성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용기가 필요함

니다. 조직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구성원들이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을 수 있어야 구성원들도 그 희생을 명예롭게 생각할 것입니다.

변변치 않은 기사에 큰 상을 허락하신 호루라기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미약하나마 언론인으로서의 소명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보도에 집중한 사안은 사학비리와 공익제보자 문제였다. 호루라기 언론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지만, 보도 결과는 미진할 뿐이다. 이들 사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여론 환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절감한다.

‘사립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실종’과 ‘서울미술고 등록금 불법과다 징수 및 공익제보 교사 탄압’ 연속기획 보도는 사회적 반향과 당국의 시정조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국민이 바라는 만큼의 개선조치는 이뤄지지 못했다.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전면 도입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교육 목적 외 원비 사용에 대한 처벌조항 입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미술고에 대해 수업료자율학교 지정 취소는 이뤄졌지만, 이 학교 공익제보자 정미현 교사에 대해서는 직위해제와 파면이 반복되고 있다.

사학비리로 이름난 동구학원 역시 의식 있는 교원들에 대한 해고 남발은 현재진행형이다. 앞서 학교 비리를 공익제보한 안중훈 교사는 수년에 걸쳐 직위해제 파면을 반복적으로 당했었다. 임시이사 파견 이후 임용되었던 권대의 교장, 오환태 교감 역시 그릇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복귀한 구재단에 의해 직위해제와 파면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의로운 일을 하다 불이익을 당한 공직제보 교사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복직판정을 받아도 이행되지 않는 문제점을 보도하자 교육부는 소청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겠다는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그나마 소기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 20여 회에 이르는 ‘서울미술고 수업료

자율학교 불법 지정'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 실시 결정을 하고, 감사가 진행 중인 점도 유의미한 성과라 할 수 있다.

CBS는 50회에 걸쳐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속기획 '고삐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를 보도했다. 이를 통해 '유치원은 학교'라는 사실을 환기함으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학원이 아닌, 학교로서 공적 역할과 국가관리가 필요함을 널리 인식시켰다. 지금은 국가지원금의 유용을 횡령죄로 처벌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이 여의치 않지만, 정치적 상황이 좋아지면 이 또한 이뤄지리라고 본다.

비리사학을 떠받치고 있는 기성 질서는 강고하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공익제보자들의 힘은 미약하다. 그럼에도 용기 있는 제보와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보도가 있기에 사회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준 취재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도가 흔들림 없이 나가도록 지지해준 CBS 보도국에 감사드린다.

2012 올해의 호루라기상	장진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전 주무관
2012 올해의 호루라기 특별상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
제1회 호루라기 언론상	경향신문사 디지털뉴스국 경향리크스
제1회 호루라기 인권상	군인권센터
제1회 호루라기 인권상 특별상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2012년 11월 14일 ‘올해의 호루라기상’ 심사위원회는 공익제보 부문에 장진수 전 주무관을, 언론·표현의 자유 부문에 경향리크스를, 인권 부문에 군인권센터, 특별상에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과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을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올해의 호루라기상’ 공익제보 부문은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증거 조작·인멸을 폭로하여 전면 재수사를 이끌어냄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 기여하고, 권력이 국민을 속이는 범죄 행위가 결코 은폐될 수 없음을 경고한 공로가 평가됐습니다.

언론·표현의 자유 부문은 경향신문 디지털뉴스국의 경향리크스를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공익제보 사이트로 새로운 형태의 ‘보도’를 시도한 ‘경향리크스’가 우리 사회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제보’의 문제에 구조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신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권 부문에는 군인권센터가 군대라는 특수 집단 내에서의 인권개선 활동에 기여해온 공로를 평가하여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부대 내에서의 여러 인권 침해 개별 사건에 대한 구제조치를 이끌어내고 이를 이슈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론회 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등 군 인권 운동의 개척적 공로가 평가됐습니다.

공익제보 분야 특별상에는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을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해관 위원장은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기하여, 기업의 준법의식과 투명성, 사회적 책임 의식의 확산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인권 분야 특별상에는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을 수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장애인 투표 실태 조사를 통하여 시설 장애인들이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기본적인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이슈화하는 등 인권 보장에 기여했습니다.

2013 올해의 호루라기상	부적절한 로비와 부당한 자금운용을 공익신고한 공공기관 직원들
제2회 호루라기 언론상	〈뉴스타파〉 조세피난처 탈세보도 제작진
제2회 호루라기 인권상	한중선 형제복지원대책위원회 활동가
2013 올해의 호루라기 특별상	김형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의원

2013년 11월 29일 ‘2013 올해의 호루라기상’ 심사위원회는 본상인 2013 올해의 호루라기 수상자로 부적절한 로비와 부당한 자금 운용 등 공공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내부 공익신고한 공공기관 직원들을 선정했습니다. 이 분들은 공공기관인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소속 직원들로서 기관에서 임원들로부터 강제 각출한 현금으로 정치권 로비를 하고, 기관장이 업무추진비 중 절반 이상을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실에 2012년 2월 내부 공익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자 징계 및 기관 경고를 이끌어냈으며 잘못된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시정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수상자들은 이로 인해 파면, 계약해지 등 조직으로부터 신분상 보복을 당하는 등 개인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당했으며 이러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직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점을 인정하여 올해의 호루라기상 수상자에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 당시 관련 사건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는 등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이 분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2회 호루라기 언론상 수상자로는 〈뉴스타파〉 조세피난처 탈세보도 제작진을 선정하였습니다. 비영리 탐사언론기관인 〈뉴스타파〉는 2012년 1월 해직 언론인 중심으로 설립되어 매주 2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차별, 정치 및 경제 권력 남용 문제를 취재해왔습니다. 특히 2013년 5월 22일부터 8월 23일까지 모두 33차례에 걸쳐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조세피난처의 한국인들’을 연속 보도하여 소문으로만 존재하던 한국인의 조세피난처를 악용한 역외 탈세 실태를 처음으로 밝히고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뉴스타파〉가 폭로한 조세피난처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 138명에 7천억 원에 가까운 탈세 추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제2회 호루라기 언론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제2회 호루라기 인권상 수상자로는 한종선 형제복지원대책위원회 활동가가 선정되었습니다. 한종선 활동가는 1984년 만 8세의 나이로 형제복지원에 입소해 1987년까지 강제수용 되어 그 곳에서 유년시절 폭력과 억압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였습니다. 한종선 활동가는 자신이 인권 피해자라는 사실에 절망하기 보다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고 〈살아남은 아이〉라는 책을 통해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인권 실태를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모임을 구성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만든 대책위원회의 핵심적인 활동가로 참여하여 형제복지원 사건이 2013년 안정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의 계기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한종선 활동가는 인권침해 피해자를 넘어선 고발자로서, 그리고 운동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는 점을 높이 사 제2회 호루라기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2013 올해의 호루라기 특별상 수상자로는 김형태 당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의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본인 스스로 사학재단 비리를 내부 공익제보하고 그로 인해 해직의 고통을 경험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김형태 수상자는 서울시 교육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익제보자들의 적극적인 보호 운동에 앞장서왔습니다. 특히 공익제보 관련단체들과 함께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마련하고 제정하는 데 앞장섰으며, 그 결과 2013년 7월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가 가결, 제정될 수 있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영훈중학교 입시비리 공론화 등 교육의원으로서 역할 역시 충실하게 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인정하여 2013 올해의 호루라기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2014 올해의 호루라기상	안중훈 사립학교 내부비리 공익제보자
제3회 호루라기 언론상	〈뉴스타파〉 특별기획 ‘원전묵시록2014’ 취재팀 박중석 김경래 송원근 조현미 신동윤 최윤원 김강민 김기철 김남범
제3회 호루라기 인권상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 핵심 증언자
2014 올해의 호루라기 특별상	영화 〈제보자〉의 제작사 ‘영화사 수박’

2014년 11월 24일 ‘올해의 호루라기상’ 심사위원회는 공익제보 부문에 안중훈 사립학교 내부비리 공익제보자를, 언론·표현의 자유 부문에 〈뉴스타파〉 특별기획 ‘원전묵시록2014’ 박중석 김경래 송원근 조현미 신동윤 최윤원 김강민 김기철 김남범 취재팀을, 인권 부문에 윤일병 집단구타 삼아사건 핵심 증언자를, 특별상에 영화 〈제보자〉의 제작사 ‘영화사 수박’을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2014 올해의 호루라기상’ 공익제보 부문은 사립학교 내부비리를 공익제보한 안중훈 씨를 선정했습니다. 심각한 회계 비리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학교 행정실장이 학교 법인으로부터 징계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부당하게 학사 문제에 개입하고 독선적인 회계 처리를 하는 등 전황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2년 4월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에 학교의 비리를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담당자의 미온적인 태도로 사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자 같은 해 7월 같은 학교법인 소속의 전교조 교사들과 함께 이사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법인의 회계와 인사 비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3회 호루라기 언론상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의 특별기획 ‘원전묵시록2014’ 취재팀을 선정했습니다. 〈뉴스타파〉 특별기획 ‘원전묵시록

2014' 취재팀은 2014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들 가운데 하나인 '안전 문제', 그 중에서도 피해규모와 양상은 치명적인 반면 대중의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핵발전소의 안전관리와 이를 둘러싼 '핵 마피아'의 실태를 진지하고도 끈질기게 연속보도 했습니다. 시민단체와의 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료 발굴과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서는 심층취재와 대안 제시로 언론의 지평을 확장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형성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이끌어내는 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제3회 호루라기 인권상에는 2014년 가장 큰 인권 사안 중의 하나였던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의 핵심증언자 한 분을 선정했습니다. 그는 의병 전역한 병사로서, 실명을 밝힐 수 없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의 가족들과 상의했고, 가족들로부터 이 상을 기꺼이 받겠다는 뜻을 확인했지만 그동안 사실 관계를 잘못 안 네티즌들의 과도한 신상털기 등으로 본인과 가족이 고통을 받아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스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익명으로 시상하게 된 것입니다.

윤 일병 사망사건의 핵심증언자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진실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알림으로써 군대 내의 인권 상황과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에 큰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호루라기 부는 사람'의 모범을 보였다고 판단해 제3회 호루라기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2014 올해의 호루라기 특별상 수상자로는 우리가 익히 아는 영화 <제보자>의 제작사인 '영화사 수박'입니다. 이 영화는 지난 2005년 겨울 우리 사회를 넘어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줄기세포 조작사건'을 모티브로 한 진실 추적극입니다. <제보자>가 이렇게 공익제보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적 고뇌와 이를 극복해나가는 시민적 용기를 영화라는 장르를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제보자>가 공익제보에 대한 시민적 인식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데에까지 나아간 것도 고맙고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 <제보자>의 제작사 '영화사 수박'이 '호루라기 부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호루라기를 불어주었다고 보고 2014 호루라기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2015 올해의 호루라기상 **전경원(하나고교 교사)**
 제4회 호루라기 인권상 **김동애, 김영곤(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제4회 호루라기 언론상 **강진구(경향신문 논설위원)**

2015 올해의 호루라기상은 전경원 하나고 선생님이 수상했습니다. 전 선생님은 서울특별시 의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위협을 무릅쓰고 양심과 진실에 따라 개교 이후 지속되어 온 입학성적 허위 기재로 인한 남녀 합격생 조작,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심각한 학교폭력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은폐”한 사실 등을 증언했습니다. 전경원 선생님은 이러한 사실의 언론 보도 후, 재단 측으로부터 온갖 협박과 회유에 시달렸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다시 2015년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하나고의 교육 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전 선생님의 진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전 선생님의 용기있고 양심적인 증언은, 과 학교, 외국어고, 자사고, 영재고 등 학생선발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선발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여 입시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제4회 호루라기상 인권 부문에서는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의 김동애 김영곤 님이 수상했습니다. 김동애 김영곤 님은 한성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 강사로 재직 중 강사 노조를 조직했습니다. 이후 강사들의 권익 보호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8년째 천막 농성을 계속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노예적 처지를 비판하여 자살한 강사들의 가정과 자녀를 돌보기 위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국회 앞뿐 아니라 청와대, 정부종합청사 등에서 농성투쟁을 하는 등 희생과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5 호루라기 언론상 수상자인 경향신문 강진구 논설위원은 공인 노무사 자격을 가진 노동전문기자로 노동자 보호 이슈에 천착한 활동 중,

“노동3권을 억압하는 사법부의 행태와 이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의 현실”을 총7회에 걸친 시리즈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특히 “노동법 전문가들과 함께 노동법 위반, 해고 위협, 변칙적인 근로계약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간접고용 현장을 고발”하여 우리 사회 노동자들이 오늘날 어떻게 기본권마저 박탈당한 채 고통받고 있는가, 노동자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법과 제도의 문제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기획보도 중에는 “국내 최초로 25년간의 정리해고 및 징의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전수분석”하여 “대법원 선고 중 85.5%가 ‘업무 방해’를 이유로 노동자 파업을 위법하다”고 판결을 하고 있음을 밝혀내는 등 노동권 신장에 기여한 노력이 평가되었습니다.

2016 올해의 호루라기상 신인술(해상병커C유 불법유통 제보자)
 제5회 호루라기 언론상 전필건(독립탐사전문기자)
 제5회 호루라기 특별상 김재천(호치민 총영사관 영사)

2016 올해의 호루라기상 공익제보 부문은 유류 불법 유통 공익제보 사례인 신인술 씨입니다. 신씨는 유류운송회사에서 해상병커C유를 불법으로 혼합하여 유통시킨 사례를 2016.8.26.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팀에 고발하여 현재 이현철 사장 등 관련자 5명이 구속됐습니다. 해상병커C유는 황이 일반 병커C유와 비교하여 13배가 높은데다 각종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환경을 굉장히 오염시키기 때문에 육상에서는 유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유류입니다. 특히 이 건 신고는 검찰과 세무서의 부실수사 및 은폐 행위 의혹을 받고 있으며, 신고 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어 회사 쪽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당하는 등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신씨는 2016.11.7. 이번 사건을 부실수사했거나 은폐하려 한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의 해당 검사와 세무서 조사과 직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신인술씨의 내부고발 사례가 유류 유통업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집행기관의 부패 및 나태를 고발하여 공익과 인권을 위한 사회적 기여와 파급효과가 큰 반면 공직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본인의 희생이 매우 큰 점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제5회 호루라기 언론상 수상자인 전필건 독립탐사전문기자는 사학비리 척결에 앞장서왔습니다. 전필건 기사는 등록금의 비밀에 대한 탐사보도를 지속하여 수원대 사학비리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의 커넥션, 김무성 대표 차녀 교수 특혜 채용 사실을 발굴하는 등 언론고발로 인하여 사학의 비리 전모를 파헤치는 성과를 거둔 점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전필건 기자의 경우 특정 언론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끈질긴 취재정신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있는 점, 사재를 털어 사회고발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2016 올해의 호루라기 특별상 수상자로는 김재천 호치민 총영사관 영사입니다. 국정농단을 통해 민주공화국을 위기로 몰아넣어 국민의 공분을 산 최순실 일가 인사개입 의혹을 현직 외교관 신분으로 언론인터뷰를 통해 제기하여 소위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구명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김 영사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베트남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최 씨의 조카 장승호 씨가 민주평통자문위원에 임명된 배경과 교민 초청 대통령 만찬에 당초 명단에 없던 장 씨가 잇선(?)의 지시로 뜬금없이 참석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외교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고,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주의가 여전히 남아있는 공무원 사회에서 내부고발의 전형을 보여주는 용감한 행동이었기에 호루라기 특별상을 통해 그 용기와 결단을 온 국민과 더불어 격려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2017 올해의 호루라기상 김은숙(국가보조금 횡령 제보)
 박헌영(최순실 국정농단 제보)
 안성익(이마트직원 불법사찰 제보)
 정미현(서울미술고 회계비리 제보)
 제6회 호루라기 언론상 박종화PD, 박대용 정형민 기자(뉴스타파)
 조일준 류이근 임인택 임지선 최현준 기자
 (한겨레신문사)
 김용출 팀장, 백소용 이우중 임국정 기자
 (세계일보사)

2017 올해의 호루라기상 첫 번째 수상자는 김용환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 대표께서 추천하신 국가보조금 횡령 등 공익제보 사례를 이끌어 낸 김은숙 님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 및 부설 희망상담소가 국가보조금을 횡령하고 사기행위를 벌인 데 대해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신고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5회 호루라기언론상 수상자이신 전필건 기자님과 하주희 민변 교육청소년위 변호사께서 추천하신 박헌영 님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박헌영 님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촛불항쟁의 계기가 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제보자입니다.

세 번째 수상자인 안성익 님은 조한일 박선숙 의원실 비서관 등 많은 분이 추천해 주셨는데 신세계 이마트가 직원들을 불법사찰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익제보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수상자는 이선경 호루라기재단 이사님이 추천하신 정미현 님입니다. 언론에 수차례 보도된 바 있는 서울미술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운영상의 회계부정과 무허가업체의 급식납품문제 등 사학비리를 제보하여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데 기여하셨습니다.

제6회 호루라기 언론상 첫 수상자는 뉴스타파 뉴미디어팀 박종화 피

디와 박대용·정형민 기자입니다. 해병대사령부 덕산스포텔에 복무 중인 상당수 병사들의 단체 공익제보를 통해 군대내 폭력과 비리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두 번째 수상자는 ‘공공기관 부정채용 민낯’이라는 제목아래 강원랜드 부정채용 게이트 등 공공기관에서 자행된 전반적 부정채용 실태를 고발한 한겨레 기획보도팀입니다.

마지막 수상자인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은 ‘갈 길 먼 공익제보’ 기획시리즈를 통해 27년간 있었던 102건의 주요 공익제보를 전수조사하여 공익제보가 조직과 사회에 미친 성과와 제보자들이 겪은 보복과 고통 등을 추적하여 공익제보의 의미를 우리 사회에 전파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 세 수상자들은 상업화하고 정치적으로 오염되어온 한국 언론의 쇠락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공익확산기능에 모범사례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호루라기 언론상이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인권 신장에 기여하였거나 표현의 자유 확대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 주어지는 상임과 동시에 우리사회에 호루라기를 불어 양심을 깨우는 행위와 연계된다는 특별한 취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공익제보성이 강하거나 그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 점을 특히 고려하였습니다.

축하공연: 吉音 판소리

(사)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는 2010년부터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가족들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 활동을 해왔습니다.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집단상담을 받았던 피해자들은 상담프로그램을 마치고 ‘吉音 판소리’로 치유모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판소리를 통해 그동안 겹겹이 쌓여있던 마음의 응어리를 소리로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길음판소리 모임은 또 다른 형태의 치유프로그램으로, 2015년부터 임진택 명창의 지도하에 진행되는 문화치유프로그램입니다. 현재 고문 등 국가폭력피해자들과 그 가족 그리고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 후원회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吉音 판소리’ 모임의 주된 구성원인 국가폭력피해자들은 1970~1980년대 군사독재정권하에서 간첩으로 조작되어 십수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신 피해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민주노동운동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온갖 고초를 당한 노동운동가들입니다.

‘길할 吉, 소리 音’을 뜻하는 ‘吉音 판소리’ 모임의 이름은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에서 따왔습니다. ‘吉音 판소리’ 모임은 오랜 세월 기가 눌러 지내던 국가폭력피해자들이 소리를 내지르면서 기를 펴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매주 신명나는 판소리를 통해 묵인 마음을 풀고 기쁨과 희망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UN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기념행사에서 판소리 공연을 하고 있으며, 그밖에 ‘11.22 재일동포간첩조작사건 40주년기념 집회’(일본 오사카, 2015), ‘민주가족송년의 밤(2017)’, ‘민가협총회(2018)’, ‘민청학련 출판기념회(2018)’ 등 초청공연을 통해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연대와 희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 참고 -

“2014년 문화치유 프로그램 뒷풀이 자리에서 어느 분이 판소리를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고 했다. 30년 동안 소리를 한 번도 못 질러 봤다고 했다. 그때 ‘아차 그렇구나’, 깨달음이 있었다. 30년 동안 소리를 한 번도 질러보지 못했다는 것은, 기가 죽어지냈다, 기가 눌렸다는 표현이다. 기 한번 펴고 싶다는 소리로 들렸다. 기를 펴게

하는 것이 치유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었다. 활력과 생기가 돌게 하는 것이 치유의 목표 아닌가. 판소리는 예술문화치유의 한 부분이지만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자기의 생명력을 발산시키는 것이 판소리 치유의 강점이다. 예술·문화는 카타르시스의 힘을 주는 것을 넘어 치유의 기능도 있다.”

- 판소리 지도: 임진택 창작판소리 명창

(사)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는 인권피해자를 돕고, 사람을 진정 존중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인권의학연구소는 취약계층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보건의료인에 대한 인권교육, 인권피해자들의 의료·법률·생활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25일에는 국가폭력 피해자 전문 민간 치유단체인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숨’을 개설하였습니다. ‘숨’은 고문 등 국가폭력 피해자 전문 민간 치유센터로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치유와 재활을 통해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인권피해자 치유지원사업입니다. 국가폭력 등 인권피해자 개인·집단상담프로그램과 곱판소리 모임 등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 UN 국제고문피해자 지원의 날(김근태기념치유센터 ‘숨’ 개소 5주년) 기념행사 공연>



‘휘슬블로어(whistle-blower)’는
공익제보자를 뜻합니다.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에 대해 경고와 각성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으로, 우리 사회를 지키는
‘빛과 소금’입니다.



양심
호루라기

호루라기재단 horuragi.or.kr

주소 (0664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90 2층(서초동, 세환빌딩)
전화 02-2068-6930 팩스 02-2068-6963 이메일 horuragi@gmail.com
후원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49655 재단법인 호루라기
농협 301-0107-3005-61 재단법인 호루라기